

광주문화재단 '무등산 사계 프로젝트' 중 '선비들의 여름나기' 행사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시구 읊조리는 멋이야말로 한 여름의 佳境이 아닐 수 없다

(가경:경치가 좋은 곳)

23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 앞 흐릿한 시냇가. 망 건을 두르고 갓 쓴 선비들이 바지 자락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다. 깨끗하기로 이름난 선비들이지만, 폭폭 삶은 삼복 더위에는 별 수 없었던 지 바위에 걸터앉아 벗어젖혔다.

그래도 체면 때문에 도포는 벗을 수 없고 양반인지라 계곡물 속으로 뛰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발만 씻는다. 바로 탁족(濯足)이다. 조금 벗었는데 빠져 시릴 정도로 한껏 시원했는지, 한 선비가 저절로 시 한 수 읊조린다.

"하던 일도 쾅개치고 세상 인연도 털고/한여름 불발더위 씻어보고자 하네/맑은 물에 돌 던지고 붉은 난간 흔들는데/뽀뽀한 풀숨에 잇따른 소나무 그늘자리 굽도다/꿈으로 사라질까 덜컥 겁나는데/마침내 좋은 경치 용이 잠을 청하네."

이어 시종들이 내놓은 복답인 답축에 술잔을 기울이고 향도 곁들이니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는다.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찜통 더위. 420년 전 옛 선비들이 가까운 벗들과 시원한 계곡을 찾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풍류를 즐기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됐다.

장소도 식영정을 세운 서화당 김성원을 비롯, 설월당 김부륜, 정암수, 양자정, 최경회 등 11명의 선비들이 모여 무더위를 식이면서 시화(詩會)를 연 곳으로 전해지는 환벽당과 양산보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과 사촌 김윤제를 초청, 장기를 두거나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었던 소쇄원을 택했다.

'성산계류탁열도'와 '소쇄원도'를 재현한 이날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의 '무등산 사계 프로젝트' 중 '선비들의 여름나기'라는 행사, 역사적 '장소'로만 남아있던 공간에 그림 속 옛 모습을 토대로 음악과 공연, 이야기를 입혀 관람객들에게 사실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다.



23일 담양군 소쇄원·환벽당에서 400여년 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을 되살리는 행사가 열렸다.

무등산 계곡서 '성산계류탁열도' '소쇄원도' 재현

관람객에 체험 기회 제공... 28일·8월4일 행사 진행

들의 여름나기'라는 행사, 역사적 '장소'로만 남아있던 공간에 그림 속 옛 모습을 토대로 음악과 공연, 이야기를 입혀 관람객들에게 사실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다.

성산계류탁열도는 서화당 김성원의 '서하담유고'에 그려진 그림으로, 16세기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 재를 좇는 대신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썼던 조선조 선비들이 환벽당과 모이던 성산계류에 모여 더

위를 씻으며 시회를 즐기는 풍경을 담았다.

재현행사 시나리오도 당시 그림을 기본으로 놀이패 '신명', 임준성 조선대 교수, 화가 허달용씨, 거문고 명인 정준수씨 등이 나서 김성원과 김부륜, 정암수 등의 역할을 맡아 당시 분위기를 살렸다.

소쇄원에서도 400여년 전 어느 여름날, 풍광에 취한 김인후 선생이 쓴 오인절구 '소쇄원 48경' 중 소쇄원을 배경으로 담론을 나누며 더위를 잊고

발을 담가 땀을 식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16가지 풍경이 재현됐다. '지대납량'(池臺納涼·못가 언덕에서 더위 씻다), '상암대기'(床巖對棋·평상대 위에서 장기 두다), '복류전배'(沕流傳盃·도는 물에 술잔 띄우다), '조담방욕'(槽潭放浴·조담에서 미역 감다) 등의 시구를 운치 있게 되살렸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같은 행사를 재현한다. 문의 062-670-745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의 발톱, 인간·자연·환경'을 되돌아본다

고흥 남포미술관, 29일까지 국제환경미술전

생태계와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 인류는 위기의 지구 환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연 환경과 인류의 유기적 관계를 되돌아보고 모색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고흥 남포미술관은 29일까지 '세계의 발톱, 인간·자연·환경'이라는 주제로 국제환경미술전을 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박병욱 예술감독과 16개국 22명의 작가가 참여, 실험성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신용구, 독일 출신 리사 샴베르거와 크리타티야 베스틀, 스위스 작가인 우슬라 스탈러와 수잔 플라 등으로, 회화 중심에

서 벗어나 설치·영상 작품, 퍼포먼스 등 행위예술, 음악극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 공간을 채운다. 스위스 작가인 우슬라 스탈러가 고흥을 돌며 수집한 각종 폐품, 쓰레기 등을 오브제로 삼아 색깔, 수집 시기 등으로 나눠 배열한 '만남' 등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면서도 진지한 사색과 튀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뉴질랜드 출신 가브리엘 아담스가 150년 된 가정을 아이스크림 기계로 가지고 미술관 주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미술과 대중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1-832-0003. /김지을기자 dok2000@



우슬라 스탈러 작 '만남'

아몰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26~29일 광산문화회관서 '남자군' 공연

2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똑같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지난달 올해 여든 여섯인 김화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에도 이곳에서는 어김 없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026번째 집회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연극 '남자군'이 공연된다. 26일~29일 광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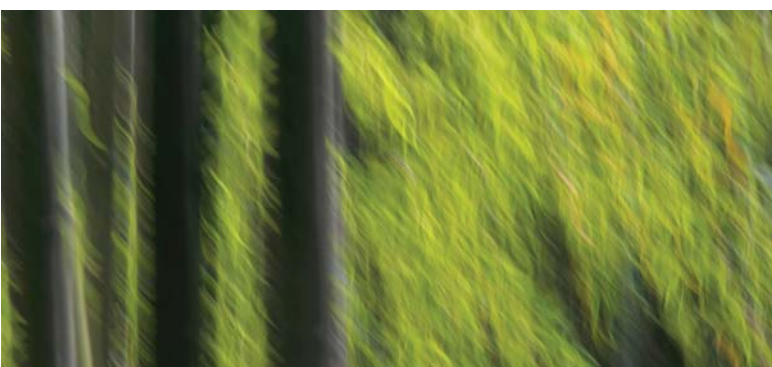
극단 '아트컴퍼니 원'을 이끌고 있는 원광연씨가 직접 희곡을 쓴 '남자군'은 전국연극제 대상(1992), 전국연극제 장려상(1994) 등을 수상한 작품이다. '남자군'은 일본이 위안부를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름이다

연극은 주인공 최명순 할머니의 현재 모습과 회상 속 과거, 두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는 배 안. 그곳에는 일



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대생 세 명과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당하고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최명순, 그리고 그녀의 손녀가 타고 있다. 최할머니는 말쑥을 시도하는 재일교포 청년들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며 아픈 과거 속으로 들어간다.

공연 기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할머니들이 그때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나무 (Bamboo)'

'竹, 비움에 젖다'

라규채 사진전, 28일부터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대나무 사진가로 알려진 라규채씨가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연다.

'竹, 비움에 젖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홉번째 개인전도 대나무 사진들로 채워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2~4m에 달하는 대형 파노라마 대나무 사진 12점으로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한다.

작품에서는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

른 기상 외에도 '비움'에 대한 작가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움직임은 포착한 사진들을 통해 동양 선(禪) 사상을 살펴보는 작가의 예술 세계도 드러난다.

라씨는 8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5권의 사진집을 내는 등 고흥 담양군의 상징인 대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의 062-383-007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할인봉사 OFF SALE** **30%**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